힘내라 쇼트트랙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쇼트트랙대표팀은 잇따른 편파판 정에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경이지만, 아직 남은 6개 종목을 위해 심기일전을 다짐하고 있다. 베이징캐피털실내빙상장에서 훈련 중 인 황대헌(앞)과 최민정.

승부조작급 텃세 중국 오늘 제대로 눌러주마!

2022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쇼트트랙대표선 수들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다. 중국 선수를 밀어주기 위 해 타국 선수들의 실격 판정을 남발하는 비정상적 흐름과 도싸워야하기 때문이다. 7일 남자 1000m 준결선에서 황 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의 거듭된 실격 판정 으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과제다.

이번 대회 쇼트트랙은 도를 넘은 편파판정과 텃세로 얼룩졌다. 중국 선수와는 작은 접촉이라도 발생하면 이 유를 불문하고 실격 처리될 수 있기에 경쟁국 선수들은 극도로 예민하다. 우리 선수들도 마찬가지다.

억울하고 불운하다. 그러나 아직 6개 종목이 더 남아 있다. 이대로 주저앉기에는 이르다. 한국쇼트트랙의 우 수성을 보여줄 기회는 얼마든지 남아있고, 출국에 앞서 언급했던 "실격의 여지조차 주지 않는 압도적인 레이

男 1500m 황대헌·이준서·박장혁 출격 '2위로 숲' 딴 중국 런즈웨이에 설욕 각오 女 1000m 예선엔 최민정·이유빈·김아랑 이소희 코치 "압도적 레이스 이제 시작"

스"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편파판정의 피해를 본 남자 1000m의 좌절은 실력이 아닌, '응원전'과 '조 작'에 당한 것이니 고개 숙일 이유가 전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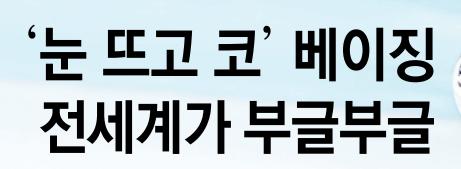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다. 쇼트트랙대표팀 이소희 코 치는 "선수들도 중국의 텃세를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했 다"며 "특히 접촉과 관련해 정말 많이 준비했다. 아웃코 스를 돌 때나 인코스에서 빠져나올 때도 최대한 접촉을 줄이고자 많은 연습을 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 이상의 판정이다. 어제(7일) 남자 1000m에선 스치지도 않았는 데, 실격 판정이 나왔다"고 말했다. 선수들의 기량과 컨 디션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최민정(성남시청) 또한 "속도와 컨디션에는 큰 이상이 없다"며 남은 경기에서 활약을 다짐했다.

9일에는 남자 1500m 메달 레이스가 펼쳐진다. 황대헌 이준서, 박장혁(스포츠토토)의 3명이 나선다. 설욕전이 다. 올 시즌 이 종목 세계랭킹 1위로, 7일 남자 1000m에서 금메달을 줍다시피 한 런즈웨이(중국) 등과 맞선다.

박장혁은 7일 피에트로 시겔(이탈리아)의 반칙으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우다징(중국)과 2차 충돌하는 바람 에 왼손이 찢어졌지만, 11바늘을 꿰맨 상황에서도 남은 경기 출전을 강행키로 했다. 개인전 멤버들 중 올 시즌 남자 1500m 랭킹이 가장 높아(3위) 기대가 크다. 스스 로도 혼성계주의 아쉬움을 만회할 기회다. 이 코치는 "(박장혁은) 다행히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선 수 본인의 출전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설명했다.

여자 1000m 예선과 3000m 계주 준결선도 9일 열린 다. 1000m에는 최민정, 이유빈(연세대), 김아랑(고양시 청)이 출전한다. 3000m 계주에선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 지 않았던 단체전 멤버 서휘민(고려대)과 박지윤(한국체 대)도 출격을 준비한다. 그토록 강조했던 '압도적인 스 케이팅'으로 '비정상'에 맞서면 된다. 실력으로 이기는 것만큼 통쾌한 장면도 없다. 우리 선수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베이징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강산 기자의 여기는 베이징

1000m 황대헌·이준서 황당실격 헝가리 선수 잡아챈 장면 못 본척 심판이 몰아 준 中의 금메달 추태 "작정하고 편파 판정" "황당·분노"

도를 넘은 편파판정과 텃세, 이 정도면 '승부조작급'이다.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번 대회 쇼트트랙에서 중국이 편파판 정으로 이득을 본 사례는 큰 틀에서만 2차 례다. 2000m 혼성계주와 남자 1000m에서 중국은 '힘 안들이고' 금메달을 따냈다.

그 과정은 말 그대로 코미디였다. 5일 2000m 혼성계주 준결선에서 중국은 배턴 터치 없이 2바퀴를 돌고도 실격 판정 없이 결선에 올라 금메달을 차지했다. 국제빙상 경기연맹(ISU) 규정집에 '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레이스에 참가할 수 없다'고 명시 돼 있음에도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

7일 남자 1000m 준결선에서 석연찮 게 실격당한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 (한국체대)의 사례는 편파판정의 결정제 였다. "중국 선수와는 바람만 스쳐도 실 격"이라던 쇼트트랙대표팀 최고참 곽윤 기(고양시청)의 우려는 명확한 현실인식 이었다.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과 같았다. 이 날 준준결선에서 피에트로 시겔(이탈리 아)의 반칙에 넘어지며 손을 다친 박장혁 (스포츠토토)은 하필 '중국 선수' 우다징의 날에 부딪쳐 손가락 위쪽이 찢어졌다. 박장 혁은 어드밴스(자동진출)를 얻고도 준결선 을 포기(기권)했다. 이로 인해 황대헌은 준 결선 1조에서 2명의 중국선수(리원롱, 우 다징)를 홀로 상대했고, 기막힌 인코스 추 월이 페널티로 둔갑하는 바람에 결선에 오 르지 못했다. 그 대신 중국 선수 2명이 나란 히 결선행 티켓을 따냈다.

준결선 2조의 이준서도 샤오앙 리우 는 유머는 이제 현실이 (헝가리)의 앞에서 무리하게 진로를 변

경했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실격 당했다. 예선에서 이준서의 그림 같은 지그재그 추월에 눈 뜨고 당했던 중국은 강력한 경쟁상대 한 명의 탈락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심판진은 결선에서도 1위로 골인한 샤올린 산도르 리우(헝가리)에게 2차례 페널티에 따른 옐로카드까지 부과하며 2위였던 중국의 런즈웨이에게 금메달을 안겨줬다. 정작 런즈웨이가 결승선 목전 에서 산도르 리우를 잡아챈 장면은 그냥 넘어갔다. 산도르 리우는 링크를 빠져나 가며 심판진에게 강력히 항의했지만 요 지부동이었다.

쇼트트랙인들은 중국의 편파판정을 확 신하고 있다.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본 KBS 이정수 해설 위원은 "(중국을 제외한) 한국과 다른 나라 선수 들, 미디어들이 내일 비 행기 타고 돌아가서 밀 라노올림픽을 준비하 는게좋을것같다", M BC 안상미 해설위원은 "이 정도의 판정은 본 적이 없다. 한두 번의 홈 콜은 그럴 수 있지만, 이

번에는 작정하고 만들었다. 황당해서 어 이가 없다"고 분노했다. 한국선수단역시남자1000m준결선종

국제빙상경기연맹(IS 픽위원회(IOC)에 항 의 서한을 보냈다. 국제스포츠중재재 판소(CAS) 제소도 진행할 방침이다.

남은 쇼트트랙 6개 종목에서도 비슷한 일 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고 장담하기 어렵다. '눈뜨고코베이징'이라

료후심판진에게강력 히 항의하고, U)과 국제올림 다. posterboy@donga.com

으로 전락한 베이징동계 올림픽이다. 특히 쇼트트 랙에서 시비가 끊이질 않 는다. 헝가리의 샤올린 산도르 리우(앞)가 7일 열린 남자 1000m 결선 에서 가장 먼저 피니시라 인을 통과하고도 옐로카 드를 받아 2위로 골인한 런즈웨이에게 우승을 도 둑맞았다. 베이징 | 뉴시스

편파판정과 텃세가 도를

님있다. 공세중국세진

중국 "한국, 떨어진 전력이나 탓해라"…국제적 비난에도 뻔뻔

모두가 '노(NO)'라고 할 때, '예스(YE S)'를 외치는 것은 용기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런데 때로는 도가 지나쳐 '어리석음'의 표상이 될 수도 있다. 2022베이징동계올 림픽 쇼트트랙에서 나오고 있는 노골적 편 파판정을 둘러싼 이야기다.

개최국 중국은 쇼트트랙 2000m 혼성계 주(5일)와 남자 1000m(7일) 금메달을 수확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숱한 눈물이 흘러 나왔다. 남자 1000m 준결선에서 한국의 황 대현(강원도청)과 이준서(한체대)가, 결선

에서 샤올린 산도르 리우(헝가리)가 희생양 이 됐다. 앞선 혼성계주에선 미국과 러시아 올림픽위원회(ROC)가 큰 피해를 봤다.

경기장에서 관전한 다른 나라 선수단이 거센 야유를 퍼부은 이 사태를 여러 외신들 도 주목했다. 뉴욕타임즈는 8일(한국시간) "혼성계주에서 미국이 이해 못할 페널티를 받았는데, 한국과 헝가리도 남자 1000m 판 정을 놓고 국제빙상경기연맹(ISU)에 이의 를 제기했다가 기각됐다"며 "개최국에 큰 이득이 돌아가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AP통신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결선에서 런즈웨이(중국)만 생존했다. 런즈 웨이에 몸싸움 도중 붙잡힌 산도르 리우만 페널티를 받았다"고 전했고, 일본 도쿄스포 츠는 "쇼트트랙에 의심스러운 판정이 속출 한다"고 꼬집었다. 그 외에도 호주, 캐나다, 대만 등의 주요 매체들이 이슈로 다뤘다.

세계 빙상인들의 반발도 강하다. 특히 2009년 세계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 우승자인 라이언 베드포드(미국)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논란의 영상과 함께

"ISU와 개최국의 공모가 틀림없다"는 글 을 올리며 조롱했다.

하지만 중국은 전혀 다르다. 현지 최대 포털 바이두는 일련의 사태와 국제적 비난 은 외면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고, 시나스 포츠는 "한국이 자신의 떨어진 전력을 탓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분노를 표출했다" 고 주장했다. 올림픽이 아닌, 국제올림픽 위원회(IOC)를 초청한 '동계중국체전'이 라는 빈축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전개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김연경 "또 실격???!!!! 와 열 받네!!!"

김제덕 등 도쿄올림픽 영웅들도 분노

7일 벌어진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쇼 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의 편파판정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여름 2020도쿄올림픽에서 감동을 선사했던 태 극전사들도 석연찮은 판정에 분통을 터뜨 렸다. 판정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 게 진로를 변경해 상대를 방해했다는 이유

다. 심판이 신이 아닌 이상 오심은 나오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도 해도 너 무 했다. 개최국 중국에만 유리한 편파판 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연이 어 벌어졌다. 준결선 1조에서 황대헌(강원 도청)은 인코스로 추월하는 과정에서 뒤늦 로 페널티를 받았고, 준결선 2조에서 2위 로 골인한 이준서(한국체대)는 레인 변경 반칙이라는 이유로 실격 당했다.

들은 열을 받았다. 도쿄올림픽에서 한국여 자배구를 4강에 올려놓은 뒤 대표팀에서 은퇴한 김연경(34)은 트위터에 "또 실 격???!!!! 와 열 받네!!!"라고 적었다. 김연경의 트위터에 팬들은 폭풍 공감하며 편파판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도쿄올림픽 양궁 2관왕에 오른 '고교 궁

사' 김제덕(18·경북일고)은 "쇼트트랙 룰 을 잘 모르지만 판정이 이게 맞나요?"라 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또 "굉장히 부끄러 이에 대해 같은 태극마크를 달았던 동료 은 일이네요"라며 화를 내는 이모티콘을 달았다.

> 도쿄올림픽 수영 자유형 100m에서 아 시아선수로는 65년 만에 결선에 올라 5위 를 차지한 황선우(19·강원도청)는 쇼트트 랙 경기 중계를 보는 사진을 올린 뒤 "…" 이라고 적으며 황당함을 내비쳤다.

> >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